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발행인 조정원 / 편집주간 최상진 / 편집장 최수정 / 인쇄인 김준배

서울캠퍼스(우 : 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
☎961-0095, 963-5849
FAX 962- 7718
수원캠퍼스(우 : 449-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1
☎741-5701(교환:2056·2860)
직통 (0331)201-2056·2860
FAX (0331)204-8121

제1136호 〈주간〉 1998년 2월 20일 (금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년 5월 12일 창간) ISSN 1228-0054 【1】

46회 학사학위 수여식 3천3백81명 졸업

원세윤(기악)양·박대옥(서반아)군 총장상 수상, 성적우수상 87명

23일 석·박사 수여식…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명예경제학박사 학위 수여

97학년도 학사학위수여식이 오늘 개최된다.

당초 23일 개최하려던 이번 학위수여식은 대학원 학위수여식 일정으로 인해 3일 앞당겨 개최하게 되었다. 〈졸업생 명단 4·5·6·7면〉

단대별로 분산, 개최되는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원세윤(기악)양을 포함해 3천3백81명이 학사학위를 수여받는다.

각 단과대학 성적최우수자 19명과 평점평균 4.0 이상의 우등졸업생 68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대학별 졸업생 수는 문리대 3백69명, 법대 1백20명, 정경대 4백54명, 사범대 75명, 가정대 92명, 의과대학 1백38명, 한의대 90명, 치대 68명, 약대 38명, 음대 1백10명, 체대 96명, 외대 2백25명, 사회대 2백90명, 자연대 2백24명, 공대 6백6명, 산대 2백26명, 체과대 1백57명이며, 캠퍼스별 수여식장 및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석·박사 학위수여식은 예년과 달리 학사학위수여식 3일후인 23일 오전 11시 크라운관에서 개최된다.

박사 1백13명, 석사 5백69명, 특별과정자 3백9명을 배출하는 이번 수여식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명예 경제학박사 학위 수여순서도 진행되는데 이로 인해 석·박사 학위수여식 입장시 보안을 위한 통제가 있을 예정이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1966년부터 1970년까지 우리학교 대학원 및 경영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연구하고 미국 하버드대, 영국 캠브리지대에서도 경제학을 연구했다.

이후 '대중경제론'을 비롯, 30여권의 저서를 발간하는등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이 높이 평가되어 이번에 우리학교로부터 명예경제학박사 학위를 수여받게 된 것이다.

〈강남이 기자〉

총장 축사

조정원 〈총장〉

존경하는 김대중 제15대 대통령 당선자님, 이희호 여사님, 본교 설립자이신 학원장님,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느 졸업식보다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먼저 졸업생 여러분의 학위수여를 축하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영부인께 학교를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명예경제학박사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한국전쟁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이라 불리는 국가의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졸업식을 거행하면서도 축하와 격려, 그리고 미래와 꿈을 얘기하기 전에 걱정과 어려움을 극복해 달라고 당부를 해야하는 현실에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늘의 경제적 기적을 일구어 낸 민족입니다.

수 많은 외침과 내환에도 불구하고 5천년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 온 민족이기도 합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금가락지를 들고 나오는 국민과 팔을 걷어 부치고 헌혈을 하기위해 기다리던 우리네 모습은 모두에게 아직도 감동과 희망이 남아있음을 깨닫는 계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위기는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해 내는 대학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국민이 있는 한 이 어려움은 곧 극복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엄숙한 학위수여식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세가지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젊습니다. 젊다는 것은 가능성을 지녔다는 의미이며, 가능성은 반드시 결실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가 활동하게 될 사회는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부단히 자신을 연마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분야에서 일인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희인임을 잊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은 경희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늘 정의와 명예를 생각하고 모교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경희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졸업생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배이신 경희의 이름을 역사에 길이 빛내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명예경제학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참관자가 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분이 나라를 위험으로부터 구해 낸 위대한 대통령이 되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도 아울러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졸업은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는 점을 상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축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빛 군단 농구대잔치 '준우승'

2차전 3점차로 연세대에 아쉽게 패해

지난 5일 막을 내린 '97-98 농구대잔치'에서 우리학교 농구부가 준우승의 쾌거를 획득했다.

남자부 결선리그에서 4승 1패의 성적을 거두고 같은 성적을 거둔 연세대와 3전 2승제로 시합을 벌인 우리학교 농구부는 아쉽게도 연세대에게 패해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다.

이번 경기의 승부를 판가름한 5일 2차전은 시종 5점내의 근소한 점수차를 보이며 진행되었는데 종료 3분전 연세대 김택훈의 레이업으로 역전당한 우리학교는 결국 3점차로 연세대에게 패했다.

그러나 이날 경기를 응원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응원은 과히 우승감이라 할만큼 단결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27일 98학년도 입학식

98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오는 27일 오전 11시 서울캠퍼스의 노천극장과 오후 2시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열린다.

5천 4백여명의 신입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뤄질 이 행사는 입학자 선서, 총장 환영사, 학원장 축사, 동문회장 격려사 순으로 진행된다.

자유공모과제, 연구박사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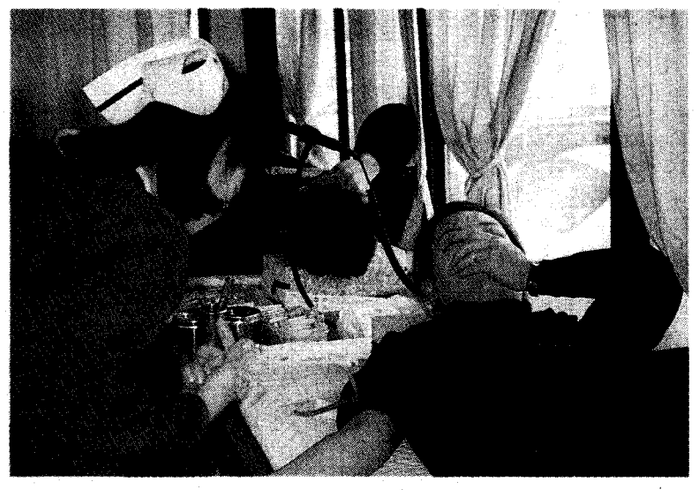
3월초 결과 발표

지난 1월 24일 신청을 마친 교비 자유공모과제에 총 83과제가 접수되어 현재 심사중이다.

심사결과는 3월초 발표될 예정이며, 그외에 지난 2월 9일부터 6일간 접수를 받은 연구박사 과제에도 5명이 신청해 현재 심사중이다.

연구박사 신청자 및 지원과제는 다음과 같다.

△정진모(물리학과 박사)=O(N)Φ4 이론의 3-Loop 유효포텐셜 △이정재(국문학과 강사)=시베리아 신화의 연구 △선경호(화학과 강사)=저가·고효율 Cu-In-Se계 태양전지 제조 및 전지특성 연구 △김진욱(행정학과 강사)=협오시설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지역정보화를 중심으로 △한규선(사회과학연구원)=영국보수당과 노동당의 이념과 정책 연구(1979-1998)



'경희가족 헌혈캠페인' 3백28명 참가

헌혈액 3백45리터 적십자에 기증

지난 1월 22일부터 우리학교가 실시한 '나라사랑 헌혈캠페인'에 3백명이 넘는 학내구성원이 참가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캠페인으로 모인 헌혈량은 총 3백45리터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천6백57만5천원에 이른다.

이틀에 걸쳐 양 캠퍼스에서 실시한 이번 캠페인으로 모인 헌혈액은 적십자사에 기증했다.

또한 우리학교는 지속적인 헌혈캠페인을 위해 헌혈을 사회봉사로 인정, 학점에 반영하고 교직원에게 경희의료원의 헌혈전용창구를 상시 개설하는 등의 실천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김완희 교수외 2명 정년퇴임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교수 정년퇴임식과 전체교수회의가 개최된다.

3명의 교수에 대한 정년퇴임식 중 퇴임교수에 대한 시상이 있을 예정인데 이 날 시상에서 류근림(체육) 교수는 모란장을, 김완희(한의) 교수와 장문호(도예)교수는 석류장을 수여받는다.

한편 정년퇴임식 후 2부 순서에서는 각 부처보고를 시작으로 전체교수회의가 열린다.

실직자녀를 위한 배려

등록금 분할납부제 실시, 근로장학금 지급

우리학교는 기업부도 사태로 인한 학부모 실직 또는 임금체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납부제의 적용대상은 보호자 실직에 관한 증빙서류1부, 보호자와 본인의 도장을 지참하고 학적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류를 제출한 학생은 등록금 금액중 1백만원이상의 금액을 1차 정규등록기간(28일까지)내에 등록하고 잔여액은 개강후 8주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서울캠퍼스 학생처는 '98학년도 1학기 실직 자녀 교내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학금 신청 희망자는 오는 3월 5일까지 학부모의 실직 및 임금체불에 관한 증명서 1부와 장학금 신청서 1부를 학생처 장학복지과에 제출해야 한다.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되는 학생은 교내행정 및 민원관련부서에 배치되어 월 4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며, 근로기간은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이다.

교내·외 장학금 수혜자와 일반 및 군입대휴학 예정자에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장학금액은 월 10만원이다.

신입생 수강신청

서울 26일, 수원 오늘까지

신입생 수강신청 일정이 확정됐다.

서울캠퍼스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이며, 수원캠퍼스는 오늘까지 수강신청을 마쳐야 한다.

수강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각 단대별, 학과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실시된다.

한편 재학생의 수강신청 정정기간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오는 3월 2일부터 7일까지, 수원캠퍼스의 경우 오는 3월 4일부터 5일까지이다.

졸업 CD-ROM 배부

서울캠퍼스 졸업준비위원회(졸준위)는 97학년도 졸업 CD-ROM을 오늘 복지회관 4층 여학생 휴게실에서 배부한다.

졸업앨범과 함께 배부하는 CD-ROM은 인터넷 접속 기능은 물론 수록된 사진으로 편지 및 이력서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국내·외 10대 뉴스 및 스포츠 뉴스가 수록된 졸업 CD-ROM은 졸업앨범비를 납부한 졸업생 전원에게 지급된다.

앨범비를 납부하지 않은 졸업생은 오늘 배부장소에 8만원을 납부하면 졸업앨범과 졸업 CD-ROM을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앨범배부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므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경희 space

새내기 새로 배움터로 출발!

학생회 주관 '98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17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실시되고 있다.

단대별 오리엔테이션 일정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문리대=19일-22일, 둔내 현대 성우리조트 △법대=19일-21일, 경기도 광탄 레저파크 △정경대=19일-22일, 둔내 현대 성우리조트 △가정대=19일-22일, 둔내 현대 성우리조트 △의대=18일-20일, 충북 박달재 수련원 △한의대=18일-20일, 강원도 포천 금강수련원 △치대=19일-21일, 둔내 현대 성우리조트 △약대=19일-21일, 강촌 유스호스텔 △음대=19일-21일, 강원도 원주 화승 레스피아 △체대=18일-20일, 경기도 일산 YMCA △외대=23일-27일, 도곡 포시즌 콘도 △사회대=23일-27일, 도곡 포시즌 콘도 △자연대=23일-27일, 도곡 포시즌 콘도 △공대=24일-26일, 삼립 하일라벨리 △산업대=24일-26일, 삼립 하일라벨리 △체과대=17일-19일, 수원캠퍼스 기숙사 애지원

캠퍼스별 학위수여식장

【서울캠퍼스】

	크라운관	도서관 시청각실	복지회관 강당	의료원 기숙사	한의대 중경실	치과대 강당	음대 리사이트홀	체대 고황극장
오전11시	정경대학	문리과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음악대학	체육대학
오후 2시		법과대학	가정대학			약학대학		

【수원캠퍼스】

	본관 르네상스홀	사회대 시청각실	자연대 시청각실	공대 시청각실	산대 시청각실	체과대 시청각실
오후2시	외국어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산업대학	체육과학대학

새내기 쇠(金)로 배움터

교시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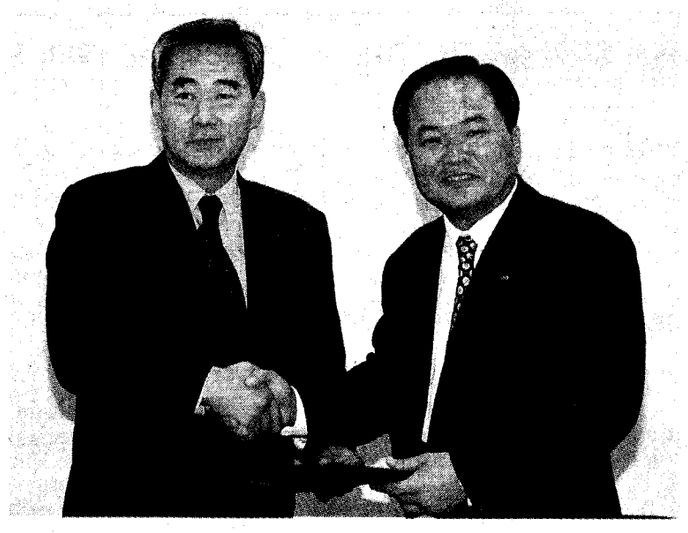
새내기 새로 배움터(새터).

새내기들의 까만 눈망울들이 모여 서로 얼굴을 익히게 되고 처음으로 대학이란 곳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이다. 지금 졸업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한번쯤 4년 전 새터에서 술한잔 권하며 따뜻하게 다가와주었던 선배들과 홍에 겨워 처음 술을 배우고 얼굴이 붉어지던 작은 추억들을 떠올려보았으리라.

그런데 우리 새내기들이 손꼽아 기다릴 새터가 그들에게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6만원이 넘는 돈은 개인에게 결코 만만한 비용이 아니며 가뜩이나 이번 겨울, 부모님의 어려운 주머니사정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3박 4일 동안 묵게 될 배움터가 강원도의 한 리조트라는 것은 대부분의 평범한 학생들에게 그다지 고운 시선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새내기 변희진(영어98)양은 "다들 힘든 시기인데 너무 사치스러워요. 가격도 부담스럽구요."라고 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새내기들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서울 총학생회는 2천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각 단대에 공간을 마련해 주기위해 연회장이 많은 곳을 선정했다고 한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새터 본연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그에 알맞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ㅎ대와 ㅇ대 등 많은 대학들은 각 단대 단위로 새터를 떠남으로써 적은 인원도 수용이 가능한 가까운 수련원에 새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ㅅ여대의 경우, 제 2캠퍼스 기숙사로 새터를 떠나 비용을 절감하는 등 현 경제상황에 알맞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참신한 생각은 새내기들의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계획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란 쉽지않다. 총학생회는 이번 새터 장소 설정에의 경솔한 판단을 인정하고 앞으로 있을 많은 행사에서는 거품장식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정수윤기자〉



이동훈 회장 1억 기증

제일화재 해상보험 이동훈 회장이 대학발전기금 1억원을 우리학교에 기증했다.

기금 전달식은 지난 1월 13일 수원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치뤄졌으며 이날 전달된 기금은 아태국제대학원 발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보직인사 13명 발령

지난 2월초 교무처는 98학년도 신임보직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로 새로운 보직을 맡게 되는 인사는 총 13명으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

△경영대학원장=이근수(정경대 회계)교수 △행정대학원장=오세덕(정경대 행정)교수 △체육과학대학원장=김진호(체대 체육)교수 △치과대학장=최유진(치의)교수 △관광대학장=유공조(사학)교수 △기획위원회 사무국장=안서규(정경대 경영)교수 △도서관장=김재홍(국문)교수 △사회교육원장=송미섭(교직)교수 △출판국장=정복근(문리대 물리)교수

【수원캠퍼스】

△신문방송국장=황승연(사회)교수 △연구산학협력처장=박경석(기계공)교수 △애지원장 겸 재무처장=이일연 처장 △평생교육원장=이숙자(일문)교수

졸업을 축하합니다